

보 도 설 명 자 료

(’21. 10. 1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이란의 수입금지 조치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
전망되며, 이란과 인도적 교역 확대 등 추진
(9.30, 10.1일자 조선비즈, 동아일보 등에 대한 설명)

- ◇ 우리기업은 이란에 가전제품을 수출하고 있지 않아,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, 정부는 양국 간 인도적교역 확대 등 경협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 협력을 추진할 계획임
- ◇ 9.30일, 10.1일 조선비즈, 동아 등 <이란 최고지도자, 한국산 가전 제품 수입 금지령... “국산 제품 보호”>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.

1. 기사내용

- 9.30일 이란 관영통신에 따르면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최근 대통령실과 산업광물통상부에 서한을 보내 한국 가전제품 수입 금지령을 내렸다고 보도
 -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란 기업들의 호소에 따라 자국 산업보호 차원에서 한국 가전제품 수입금지령을 발령한 것이라고 보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

- 이란 최고지도자가 한국 가전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명령을 내렸다는 보도와 관련,
- 현재 미국의 대이란제재로 인해 우리기업(LG, 삼성 등)이 이란에 가전제품을 수출하고 있지 않아, 동 조치가 시행될 경우에도 우리기업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

- 정부는 가용한 경로를 통해 동 조치가 양국 관계의 신뢰관계 구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중임
- 대이란제재로 인해 교역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간 인도적 교역을 확대하는 등 경협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을 추진할 계획임

※ 문의: <산업통상자원부>

김영윤 중동아프리카통상과장(044-203-5720)/ 최수웅 사무관(5723)